

# 부산지역 내 유통 중인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실태 연구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부산지역 내 유통 중인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실태를 조사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II 주요 연구내용

- 연구대상 : 부산지역 내 유통되는 로컬푸드 농산물 46품목, 188건(로컬푸드 직매장 78건, 대형마트 등 70건, 도시텃밭 21건,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19건)
- 연구방법 : 식품공전 시험법에 의한 품목별 잔류농약 및 중금속 오염도 분석
- 연구항목 : 잔류농약 130종 및 중금속(납, 카드뮴)

## III 연구결과

- 동시분석이 가능한 130종의 잔류농약검사결과 5개 품목, 11건의 시료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없었음. 전체 검출률은 5.9%(11건/188건)이고 품목별 검출률은 부추가 36.4%(4건/11건)로 가장 높았으며, 들깨잎 30.8%(4건/13건), 썩갠 25.0%(1건/4건), 매실 20.0%(1건/5건), 파 5.3%(1건/19건) 순임
- 농산물 소분류별로는 엽채류 67건, 엽경채류 33건, 근채류 20건, 박과 이외 과채류 18건, 장과류 11건, 핵과류 8건, 박과 과채류 8건, 콩류 5건, 서류 4건, 버섯류 4건, 결구 엽채류 3건, 인과류 3건, 허브류 2건, 유지 종실류 1건, 열대 과일류 1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검출률은 엽경채류가 15.2%(5건/33건)로 가장 높고, 핵과류 12.5%(1건/8건), 엽채류 7.5%(5건/67건) 순으로 조사됨
- 수거장소별 잔류농약 검출률은 대형마트 11.4%(8건/70건), 로컬푸드 직매장 3.8%(3건/78건)로 나타남. 잔류농약 검출빈도가 높은 엽채류 및 엽경채류의 검사건수가 대형마트 등이 49건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34건 보다 많았으며, 검출된 농약은 식품공전 상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분이었음
- 조사대상 188건 중 11건의 시료에서 총 8종의 잔류농약이 13회 검출 되었으며, 검출빈도는 Chlorfenapyr(3회), Tefluthrin(3회), Diethofencarb(2회), Chlorothalonil, Diniconazole, Fenobucarb, Pyridalyl, Thifluzamide 가 각각 1회씩 검출되었고 용도별로는 살충제 8회, 살균제 5회 검출됨

- 중금속 검사결과 납의 평균 함량은  $0.019 \pm 0.041$  mg/kg, 카드뮴 평균 함량은  $0.006 \pm 0.015$  mg/kg 이었고, 이 중 식품공전 상 중금속 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허브류 2건의 중금속 평균 함량은 납  $0.010 \pm 0.015$  mg/kg, 카드뮴  $0.001 \pm 0.001$  mg/kg으로 농산물 중금속 최저기준(납 0.1 mg/kg, 카드뮴 0.05 mg/kg) 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그 외 조사대상 186건은 모두 해당품목의 중금속 기준치 이내로 검출됨

## **IV** | 정책연계방안

-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이용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농산물 관리방안 마련

## **V** | 활용계획

- 부산지역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 파악 및 안전성 자료 축적
- 관련부서에 자료 공유를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 확대 등 로컬푸드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